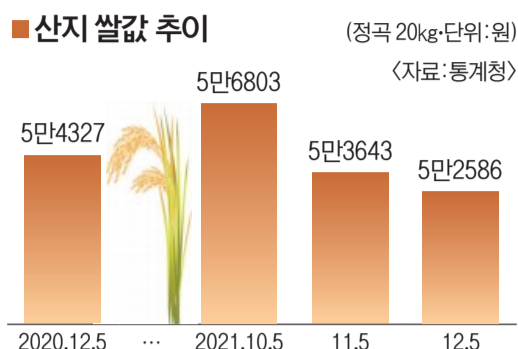


# 쌀값 급락 뻔한데...정부는 공급과잉 시장격리 뒷짐

## 6년만의 풍년 시름 깊어지는 농심

전남 재고 36만t 최근 5년내 최대 수확기 들어 쌀값 두 달 연속 하락 쌀 소비량 1984년 이후 해마다 줄어 CPTPP 가입 땀 추가 개방 걱정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쌀이 남아도는데 정부가 시장격리에 뒷짐만 지면서 쌀값 급락이 불 보듯 뻔한 것이다.

'6년 만의 풍년'에 올해 전남 쌀 재고량은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밥 한 공기에 드는 쌀값은 300원도 안된 지 오래다. 게다가 포괄적·점진적 환태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국 가입에 따른 쌀 추가 개방이 점쳐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6년 만의 풍년 역설-전남 쌀 재고 36만t=13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남지역 조곡(精穀·수확한 그대로의 알곡) 재고는 36만1000t으로,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4000t보다 무려 61.2%(13만7000t) 많은 양이다.

전남 쌀 재고는 정부가 연말까지 사들이겠다고 발표한 전국 공공비축미 35만t보다도 많다. 정부는 올해 매입 계획량을 전년(33만1000t)에 비해 5.7%(1만9000t) 올리는 데 그쳤다. 전남 배정량은 8만8800t에서 9만1000t으로, 2.5%(2200t) 늘었다.

정부의 양곡 보유량은 현재 14만t으로 올해 공공비축 35만t을 합쳐도 49만t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 국민이 석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최소 물량이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보유 권장량인 70만~80만t을 훨씬 밑돈다.

올해 농협이 자체적으로 매입하기로 한 쌀은 전년보다 19.5%(27만8000t) 증가한 170만t이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26만5000t에서 올해 36만4000t으로, 37.4%(9만9000t) 늘렸지만 이달 초순 이미 배정량의 99% 넘게 매입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0만1838t(14.8%) 증가한 78만9650t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1601t으로, 지난해에 비해 10.7%(37만5022t) 증가했다. 이에 비해 농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2021년산 신곡 수요량은 358만~361만t이다. 수요량과 비교하면 7~8%(27만2000~30만2000t) 초과 생산된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 먹고 안 짓고-푸대접에 한 공기 쌀값 263원=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이었다. 하루 158g, 한 끼에 52.7g을 먹는 셈이다. 전년(59.2kg)보다는 1.5kg 감소하고, 10년 전(72.8kg)보다는 15.1kg 줄었다. 식당에서 공기밥 한 공기를 만드는 데 드는 쌀이 100g인데, 하루 두 공기도 먹지 않는 것이다.

쌀 소비량은 지난 1984년(130.1kg) 이후 한 해도 빠짐 없이 줄고 있다.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정곡 20kg)은 5만2586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3.2%(-1741원) 떨어졌다. 수확기 들어 쌀값은 두 달 연속 하락 추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내세우며 쌀 시장 격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g당 2.6원인 산지 쌀값에 비해 환산한 한 끼

(52.7g) 쌀 가격은 138.6원이다. 세끼를 꼬박꼬박 먹더라도 500원이 채 되지 않는 415.7원에 불과하다. 농민들이 아무리 즐기게 요구해도 밥 한 공기(100g)당 쌀값은 262.9원으로, 300원 선을 넘지 못한다.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수매가가 1kg당 '커피 한 잔' 값이 나오지 않는다.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나는 올해 수매가를 조곡 40kg당 6만2000~6만3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농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kg당 1550~1575원이 된다.

이 같은 쌀 푸대접 속에 지난 50년 동안 전남 쌀 재배면적은 4분의 1이 감소했다. 올해 전남 쌀 재배면적은 15만5435ha로, 50년 전인 1971년(20만8083ha)보다 25.3% 줄었다. 50년 새 없어진 쌀 논 밭은 5만2648ha로, 이는 여수시(5만1225ha) 전체 면적을 웃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2019년 기준)은 각각 21.0% 45.8%으로, 코로나19 대응행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 식량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산 넘어 산'-목표가격 폐지하니 무역 개방 우려=우리나라 쌀 농업은 대내외적 변수가 산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 목표가격제'(변동직불제)를 시행 14년 만에 폐지했다.

대신 '쌀 자동시정격리' 등 강력한 조치로 쌀값을 보장하겠다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정작 첫해부터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농민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일 정도로 시장 개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캐나다·호주·칠레·멕시코·뉴질랜드 등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역 개방 대부분은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산업부가 지난 5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농업에 끼친 생산감소 손실을 분석해보니 한·미·한·유럽연합(EU) FTA를 포함한 5개 FTA로 인한 손실은 1조8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산업부의 다른 분석에서는 11개 FTA로 인한 5년 간 제조업 분야 생산증가 이익이 3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국가예산은 사상 첫 600조원 시대를 맞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농업예산 비중은 2.8%(16조8767억원)로 역대 최소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 대통령, 호주 헐리 총독과 환담 호주를 국민 방문 중인 문재인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연방총독 관저에서 데이비드 헐리 총독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선 다자대결 윤석열 42.0%·이재명 40.6%

### KSOI 조사... 오차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1004명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가 42.0%, 이

후보가 40.6%를 각각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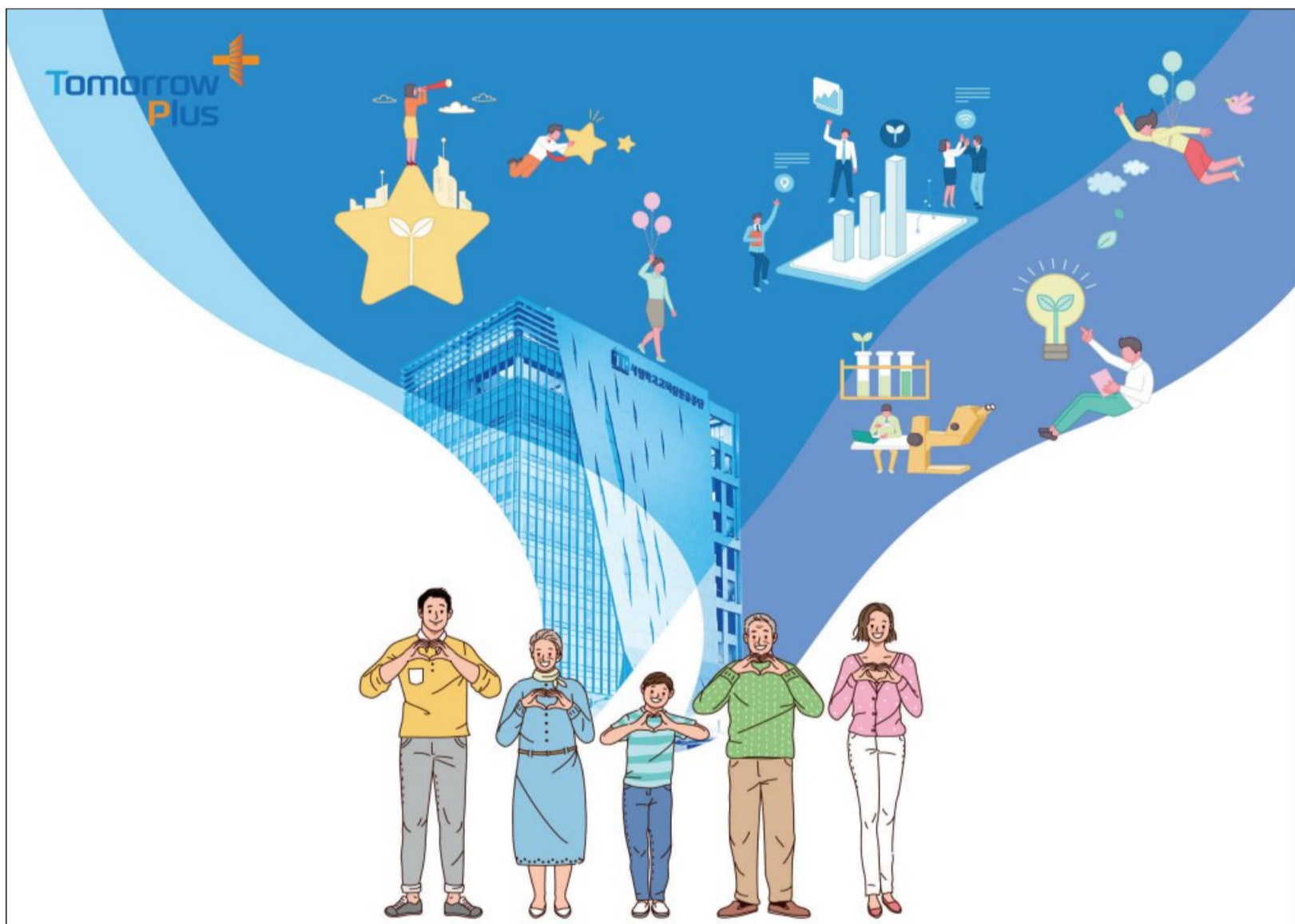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4%포인트로 3.3%포인트였던 지난주보다 줄었다.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 폭이 2.7%포인트로 윤 후보의 상승 폭 0.8%포인트보다 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8%,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6%,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후보는 1.2%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 여론조사

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5~10일 전국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45.2%였고, 이 후보는 2.2%포인트 상승한 39.7%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1.8%포인트) 밖 5.5%포인트로 지난주 6.5%보다 1.0%포인트 줄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 사학연금이 만들어나가는 세상, 모두가 행복해지는 미래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온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 사학연금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

- 유휴공간 무상제공으로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지원
-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최초 수유실 지역주민 개방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 지원

- 인재양성을 위한 노사공동 장학금 지원
- 지역 초·중·고 학생 경제·금융교육 제공

TP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74년 설립된 준정부 기관 퇴직연금서비스, 유족연금서비스, 생활자금·행복나눔 대여서비스, 재해보상제도 운영

## 침묵 깨고 이재명 지원 나선 이해찬 "尹선대위 오합지왕, 모두가 왕 노릇"

### "정권교체론은 일종의 착시현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3일 "정권교체론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30% 남짓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친노·친문 진영의 좌장으로, 여론내 대표적 원로 인사인 이 전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권교체론에 대해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것", "일종의 착시현상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 50%가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해도 그중 윤 후보의 지지자는 60~70%에 불과하고, 정권유지론이 40%로 낮더라도 그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라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판세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빼고 보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붙어

있는 형세"라며 "지금부터 1월 말까지 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형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미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며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나중에 애가해보니 우리처럼 교육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미안할 정도로 혼자 난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두고는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이라며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커버하는 건지 분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해서 당선되면 그 집단이 뭐가 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주류를 형성했던 분들은 아니다"라며 "나쁘게 표현하면 한번 물러나신 분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연합뉴스